

컴퓨터 소리카드 100% 國産化실현

〈주〉옥소리 **金 範 勳** 사장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관련 제품의 국산화가 힘들다고 말할 때 100% 우리 기술로 만들어낸 소리카드가 바로 옥소리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컴퓨터 내장 소리카드제조업체 (주) 옥소리는 고유의 기술개발과 자체상표로 창사 6년만에 국내 소리카드 시장을 석권한 무서운 기업이다.

6년만에 시장석권

〈주〉옥소리의 김범훈(35세)사장은 외제와 모방품이 판치던 지난 92년 독자 상표인 옥소리 소리카드를 시장에 내놓아 컴퓨터업계를 놀라게 한 장본인이다. 김사장은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컴퓨터라든가 발명과는 거리가 멀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계 만지는 것을 좋아하긴 했지만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는 없었다. 경남 거창이 고향인 그는 그곳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최종 학력이다.

박사와 겨룬 ‘高卒’

79년 고교졸업과 동시에 금성사에 입사한 후 1년 동안 기술연수를 받았는데

이때 받은 연수는 대학 4년과정을 단 1년만에 이수해야 했기에 식사와 취침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에 매달려야만 했다.

“평소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인 저로서는 이 연수과정에서 다른 동기들보다 뒤지지 않기 위해 몇배 이상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했던 때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막상 연수를 마치고 금성사 중앙연구소에 발령을 받았지만 박사학위자들이 수도룩한 연구소 안에서 심부름밖에는 할 것이 없던 처지인지라 대학을 못나오고 학위가 없다는 것이 뼈

에 사무치던 시절이었다. 바로 지금이 인생에 있어서 좋은 기회라 여기고 낮에는 선배 연구원들에게 그들이 가진 지식을 조금이라도 더 배우기에 노력했으며 밤에는 연구실의 기자재를 활용하기 위해 동료들의 당직까지도 일부러 떠맡아 가면서 모두 퇴근한 연구실에 혼자 남아 밤을 세워가며 나름대로 전자에 대한 독학을 시작했다.

어느 시점에 이르자 심부름이 아닌 연구팀의 당연한 일원으로서 함께 프로젝

에 사무치던 시절이었다. 바로 지금이 인생에 있어서 좋은 기회라 여기고 낮에는 선배 연구원들에게 그들이 가진 지식을 조금이라도 더 배우기에 노력했으며 밤에는 연구실의 기자재를 활용하기 위해 동료들의 당직까지도 일부러 떠맡아 가면서 모두 퇴근한 연구실에 혼자 남아 밤을 세워가며 나름대로 전자에 대한 독학을 시작했다.

어느 시점에 이르자 심부름이 아닌 연구팀의 당연한 일원으로서 함께 프로젝



◇기술개발이 중소기업의 생명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김사장.

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85년 금성사를 떠날 때까지 5년 동안 세차레나 사내발명왕에 뽑혔고 상공부 발명부문 공로표창 등의 상을 받기도 했다.

손가락이 닿으면 자동으로 꺼지는 어린이용 안전 선풍기를 비롯해 마이컴 세탁기, 냉장고 등이 모두 그의 아이디어. 국내의 출원한 특허건수만도 무려

1백여가지나 된다.

國內시장 90% 이상 점유

처음으로 벽에 붙이는 전자스위치 센서를 개발해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이때 절실히 느낀 것은 회사 운영이란게 단순치 않다는 것이었다. “어느 사업에 있어서 성공여부는 생산제품에 대한 뛰어난 아이디어와 제품의 기능, 가격, 실용성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모든 사업을 뒷받침하는 영업, 기획, 자금 등을 관리하는 전반적인 경영능력과 연련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모든 연구 및 사업을 중단하고 26세의 나이로 다시 중소기업인 현(주)옥소리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주)삼호전자의 상무로 취직했다.

어느 정도 사업경영의 수완을 익히게 되자 89년 상호전자를 인수, 다시 연구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초기 5명의 연구팀과 함께 옥소리 카드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총 2억여원의 연구개발비와 2년여의 시간을 투자해 소리카드개발에 성공했다. 옥소리는 세계 처음으로 음소추출 기술을 개발, 외국제품이 대부분인 컴퓨터 부품산업에 순수 우리기술로 만들어진 소리카드로 국내시장을 90% 점유하고 있다. 소리카드란 컴퓨터가 각종 음향과 음성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기본장치로 (주)옥소리는 이 소리카드를 통해 현대의 컴퓨터로 비디오, 오디오, 정보통신의 기능을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멀티미디어를 창조하는데 첫발을 내딛었다.

再投資가 경영의 원칙

김사장은 기술개발이 중소기업의 생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만큼은 항상 최우선이다.

현재 연구소 직원은 모두 20명. 전체 직원가운데 무려 30% 가량이 연구원인 셈이다. 연구원들의 50% 정도가 고졸 출신으로, 박사도 있고 대졸자도 있지만 김사장 자신이 고졸 출신인데다 기술개발만큼은 학벌이 그다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학벌과 전공에 상관없이 제가 평가하는 것은 현재 그 사람의 새로운 제품에 대한 창조능력을 평가할 뿐입니다.”라고 강조하는 김사장은 야간대학에 다니는 연구소 직원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92년에 1백40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93년에는 2백50억원 매출로 관련 업계에 놀라움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주)옥소리가 개발한 멀티미디어 기기는 옥소리 소리카드를 비롯해 가라오케 기능을 겸비한 옥소리 매직, TV수신카드인 옥소리 멀티비전, VTR영상과 CDP의 음질이 결합된 ‘CD-Vision’, 옥소리 리모콘, CD-ROM 드라이브 등이 있다.

또 CD-ROM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레이스시스템, 코리아 셀렉트 웨어, 백두시스템, 드림테크, SKC, 포즈데이터 등과 함께 CD-ROM 타이틀을 제작, 국민학교 4학년 이상 고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전단원의 설명 및 문제를

수룩한 ‘STUDY Group’을 비롯, 옥소리 노래방, 장두진 바둑살롱 등 36개 타이틀을 내놓고 있다.

김사장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실질적으로 이윤을 얻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재투자한다는 ‘장기투자, 장기이윤추구’라는 것이 김사장의 원칙이다.

영화보며 PC도 사용

최근 (주)옥소리에서 세계 최초 비디오 CD플레이어(VCDP)를 제품화하는데 성공해 이제 컴퓨터에서도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옥소리가 개발한 이 ‘옥소리 CD비전’은 영화를 보면서 자유롭게 PC를 사용할 수 있는 멀티테스킹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 즉 ‘CD롬 드라이브에서 컴퓨터 메모리를 통해 CD비전으로 연결되던 기존의 방식을 바꾸어 CD롬드라이브에서 직접 CD비전 옵션 보드를 통해 CD비전으로 연결되어 완벽한 멀티테스킹이 가능하다. 이로써 영화를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 문서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산품 애용이나 수입규제는 필요없습니다. 오로지 기술개발을 통한 처절한 경쟁만이 있을 뿐입니다.”

기술개발만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Hi-Touch기술 즉 선진 일본의 A/V 기술과 미국의 선진 컴퓨터 기술을 접목하여 보다 나은 우리 기술을 발전시켜 첨단 멀티미디어 기기를 개발해 내겠다고 말하는 김사장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다.

정진영 <객원기자>